

쏟아지는 신차...내년 자동차 시장 '전기차 혈투'

현대차 아이오닉6·그랜저 신모델
기아 EV6 GT·신형 니로로 맞붙
벤츠 스포츠카·EQE 등 선보여
한국GM·렉서스 등도 참전 예고

국내 자동차업계와 함께 해외 브랜드 역시 내년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하고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신규 전기차 모델을 잇달아 출시함과 동시에 기존 내연기관차 모델 역시 상품성 개선 모델을 선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내년 1분기 신형 니로를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첫 선을 보인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디 올 뉴 기아 니로'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기아의 비전인 '딥진 전용 친환경 SUV' 모델이다. 1세대 출시 이후 5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차량으로, 기아는 내년 1분기 니로 하이브리드(HEV) 모델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기차(EV)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아는 첫 전용전기차 EV6에 이어 내년 하반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EV6 GT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맞서 현대차도 전동화 모델을 앞세워 자동

차시장 공략에 나선다. 우선 현대차는 하반기 중 '아이오닉 5'에 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두 번째 모델 '아이오닉 6'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엔트리급 전기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를 선보이며 전동화 라인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제네시스도 내년 상반기 중 GV70 전동화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제네시스 G90 신형을 출시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그랜저 완전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인기 내연기관차종의 상품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GM은 배터리 결합 문제로 출시가 지연된 전기차 '볼트 EV' 신형과 '볼트 EUV'를 출시하고, SUV 모델인 타호와 고급 픽업트럭 시에라도 내년 중 출시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차는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XM3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서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국내 완성차업계의 내년 신차 '혈투'가 전망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에 이어 해외 브랜드들도 국내 시장에 신차를 출시하면서 경쟁이 가세한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는 전 세계에서 250만대 가장 판매된 인기 세단 차종인 C클래스의 6세대 완전변경 모델과 벤츠의 첫 번째 4도어 스포츠카인 AMG GT 4-도어 쿠페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벤츠는 E클래스의 전기차 버전 'EQE'와 콤팩트 전기 SUV인 'EQB', 고성능 브랜드 AMG의 순수전기차 'AMG EQS'도 내년 국내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렉서스는 순수 전기 모델 UX300e를 상



자동차업계가 내년 국내 자동차시장에 전기차를 포함한 신규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된 기아의 친환경 SUV '디 올 뉴 기아 니로'로, 기아는 내년 1분기 니로 하이브리드(HEV) 모델을 출시한 뒤 상반기 중에는 전기차(EV)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 제공>

반기 중 국내에 출시하고, BMW는 내년 상반기 전기 쿠페 i4와 럭셔리 스포츠 세단인 뉴 8시리즈의 부분변경 모델, 뉴 2시리즈 액티브투어러와 쿠페 등을 선보인다. 미니(MINI) 브랜드는 전기차인 '뉴 미니 일렉트릭'을 상반기 중 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우디는 소형 SUV인 Q2 부분변경 모델과 준중형 해치백 모델인 A3 완전변경 모델을 상반기 중에 내놓고, 브랜드 최초 콤팩트 순수

전기 SUV 'Q4 e-트론'을 하반기 중 국내 출시하는 등 수입차 역시 내년 '참전'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업계와 수입차업계가 내년 신차를 내세워 치열한 고객 선점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전기차 전환기를 맞아 오히려 더 적은 수의 신차가 출시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제네시스 신형 G90 계약 첫날 1만2000대 돌파

제네시스는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신형 G90 <사진>이 계약 개시 첫날 1만2000대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형 G90은 2018년 부분 변경 모델 출시 이후 3년 만에 내외부가 완전히 변경된 4세대 모델이며, 지난 17일 계약이 시작됐다.

1만2000대는 국내 초대형 럭셔리 세단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는 게 제네시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 초대형 럭셔리 세단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

준 약 2만대 수준이다. G90이 지난해 1만9대 판매돼 가장 많이 팔렸고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6486대)가 그 뒤를 이었다.

신형 G90은 가솔린 3.5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돼 최고 출력은 380마력, 최대 토크는 54.0kgf·m이다. 복합 연비는 9.3km/l (5인승·2WD·19인치 타이어 기준)이다.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를 기준으로 세단 8957만원, 롱휠베이스 1억6557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전기 세단 '더 뉴 EQS' 고객 인도 시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 모빌리티쇼를 통해 국내에 공식 출시되고, 본격적인 사전 계약이 시작된 더 뉴 EQS는 '더 뉴 EQS 450+ AMG 라인'과 '더 뉴 EQS 450+ AMG 라인 런칭 에디션' 2개 라인업으로 인도가 시작했다.

<사진>

더 뉴 EQS는 벤츠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와 차세대 인공지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하이퍼스کر린'이 적용됐다.

주행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

지 플러스', 조향각이 4.5도인 '리어 액슬 스티어링', 대형 해파(HEPA) 필터를 포함한 '에너지이징 에어 컨트롤 플러스' 등의 안전·편의사항도 장착됐다.

더 뉴 EQS는 1회 충전 때 478km 주행이 가능하고,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은 6.2초다.

더 뉴 EQS 450+ AMG 라인과 더 뉴 EQS 450+ AMG 라인 런칭 에디션의 가격은 각각 1억 7700만원과 1억810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토요타자동차 2030년까지 전기차 모델 30종 개발 연간 350만대 글로벌 판매

토요타자동차가 오는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BEV) 모델을 도입하고 연간 350만대의 전기차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토요타자동차는 최근 도쿄 메가웹에서 탄소중립의 실현을 향한 토요타와 렉서스의 전동화 상품 전략에 대한 미디어 설명회를 개최했다.

20일 토요타자동차에 따르면 전세계 각 지역의 에너지 시장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차(FCEV) 등 다양한 전동화 라인업으로 탄소중립을 도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의 중요한 선택지로 전기차의 라인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30종의 전기차(BEV) 모델을 도입하고, 연간 350만대의 글로벌 BEV 판매를 목표로 잡았다.

그중 렉서스는 2030년까지 전 카테고리에 전기차 모델을 도입해 전세계적으로 100만대를 판매하고,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렉서스 모델의 100% 전기차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배터리 관련 신규 투자에 있어 지난 9월 발표한 투자 금액 1조5000억엔(15조6691억원) 규모에서, 2조엔(20조892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선진적인 '양품용'의 배터리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다재다능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현대자동차그룹 '모베드'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첨단 로보틱스 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MobED, Mobile Eccentric Droid·사진)를 공개했다. 모베드는 납작한 직육면체 모양의 몸체에 독립적인 기능성 바퀴 4개가 달려있어 기울어진 도로나 요철에서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고, 휠베이스와 조향각의 조절이 자유로워 좁고 복잡한 도심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제공>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민은행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